

함께 꿈꾸는 느티나무 한글학교

www.neutinamukoreanschool.org



학생 작품 (노한나, 10학년)

2015. 7. Reader is Leader! 글로벌 리더의 행복한 한글 공부

- 3 이예지,정다윤
- 4 윤가성,임준휘
- 5 조 은,김유진
- 6 채규인,주재균
- 8 김민성,채정인,조아론
- 10 수업시간
- 11 정유진,최준호
- 14 정다정,정인아
- 16 설효빈,정유나
- 19 노지영,장송이
- 23 노한나
- 24 2015 교내 한국어 말하기 발표회
- 25 2015 한국어 학력경시대회 및 한국어 말하기대회
- 26 2015 학예경연대회



노티나목 한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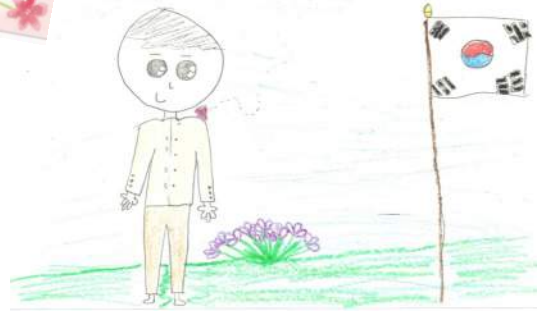
일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숙제를 점검해 주시고 운전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상을 받았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본부에서 주관한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에서도 만점이 나왔으며
 Edmonds School District에서 실시한 WAFLT (Washington Association for Language Teaching)에서
 4 high School credits도 받았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여러분의 앞날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유월 이십일, 두번째 글모음집을 준비하며
 노옥남



이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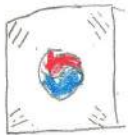
나비 가, 아빠 어께 앉았어요.



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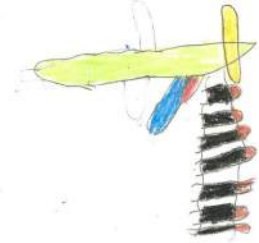
국기

정다운





윤가성



광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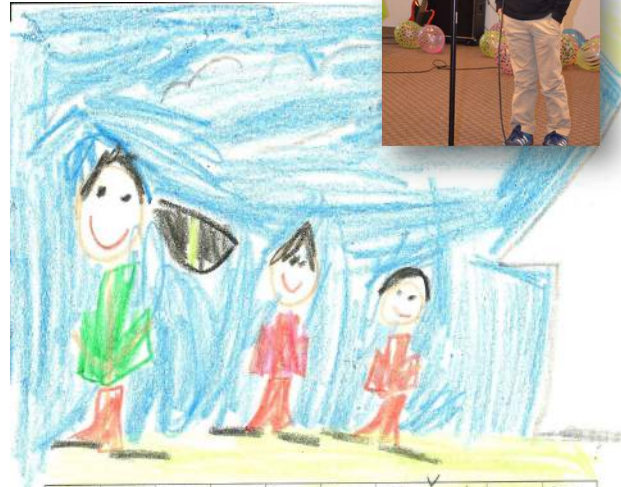
책	바나나	오빠	가위	고기
사람	사탕	꽃	손	발
			임	준
			휘	하



우리 가족 5월 28일
 우리 가족은 1학년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는 안경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마요네즈 반찬을 만드세요.
 우리 동생은 강아지를 키우세요.
 나는 스케이트를 타세요.



우리 가족 5월 28일
 조은(이하녀)
 우리 아버지는 안경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옷을 즐겨요.
 나는 동생의 친구예요.



오	늘	은	하	고	어	서	발
을		다	쳐	어		뚜	다
	남	어	쳐	어		피	가
어	요		5	리	김	유	진

아	빠	랑	동	생	랑	나	푸
빠		했	어	요	재	미	있
요	.	나	잘	했	어	요	

5.21. 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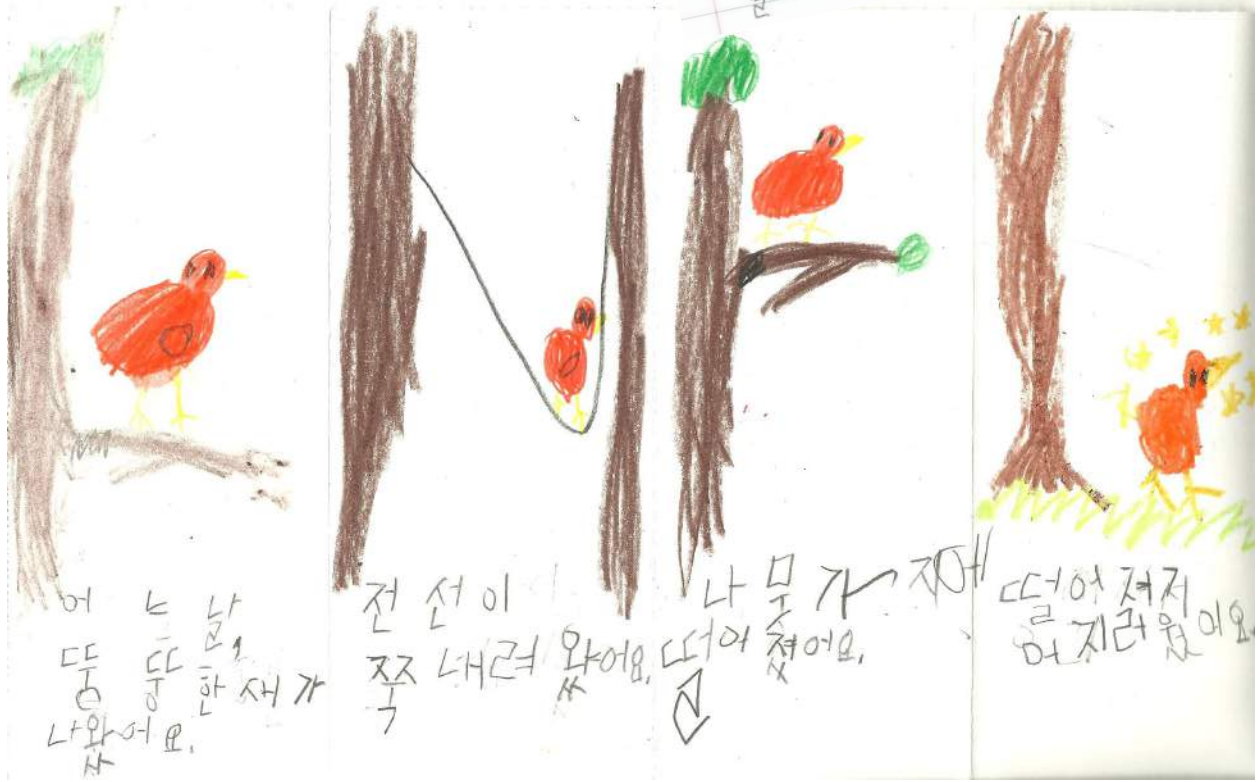


돼지가
 깎어가고
 고향이 가
 못는다. 개 하고
 된기 못는다. 돼지가
 집에 가어요. 집에 가고
 개울 에 봤어요.



채규인

왜 한글을 배우나요?
 한글배지 하고 할리매니
 문 와 고 여기 문 곁 한
 고 하고 한 국 사 하고 고 어
 실 어 화 화 고 가 구 친구
 한 국 책 한 국 보 고 싶 어요
 나는 한 국 책 발 진 짜
 잘 하 고 싶 어요.



어 는 날
 댕 댕 한 새 가
 나왔어요.

전 선 이
 잘 내려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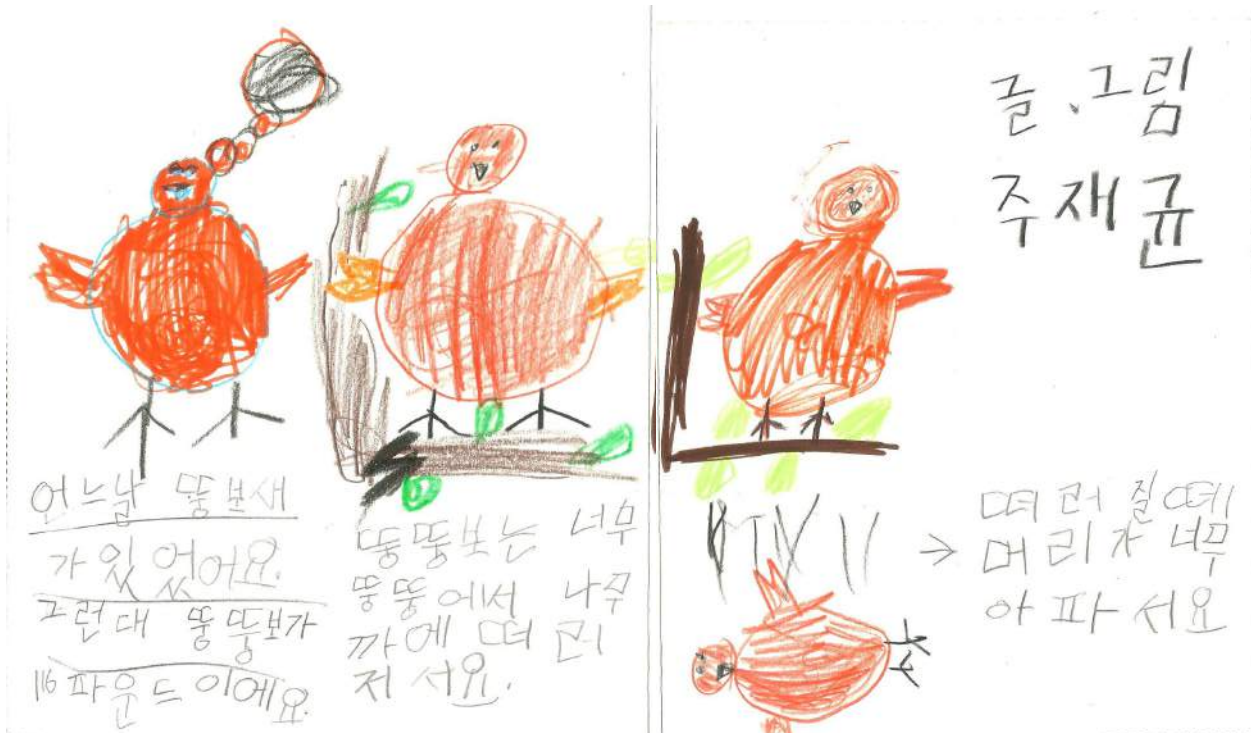
나 몸 가 자
 더워져요.

더워져서
 머 지러 왔어요.

나의 꿈 < 우리 아빠 >

주재균 (1학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아빠가 될 거예요.
제 아빠는 게임을 잘합니다.
드래곤 II 게임인데 사람들과 빨간 용이 싸우는
겁니다.
아빠는 힘이 셉니다.
제 아빠는 200파운드입니다.
큰 쇼파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골프를 잘 칩니다.
아빠가 골프를 하면 204 마일을 갑니다.
저는 아빠를 좋아합니다.



캠핑

김민성 (1학년)



지난 여름에 엄마랑 아빠랑 나랑 캠핑을 갔다. 캠핑 가기 전에 우리는 캠핑 장비를 사고 지렁이 미끼도 샀다. 캠핑장에 가서 먼저, 차에서 캠핑 장비를 꺼냈다. 그리고 아빠가 새로 산 텐트를 쳤다. 그 다음,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그리고 바다에 가서 조그만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노란색과 연두색이 조금씩 있는 농어였다.

저녁에는 농어를 숯불에 구워 먹었다. 또 모닥불에 머시멜

로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이빨 닦고 잠옷으로 갈아 입었다. 잠자기 전에 너구리도 보았다.



개가 낚시
하고 이
어오. 낚시
생물도
는 거였어

김민성 5-8
2015



똥보새
그림: 김민성

어느날 똥보새
가 이
그리대
하

있어요. 이제
똥보새가
파운드가

이가지 저가지
옴 기다렸는데
겨우 앉을가
구

가 부서
다치고
요.

재정인 지아가족

5-29-15



저아빠는 Boeing 에서 work
 해요. Boeing 에 돈 많이 가져요. 돈 많이
 가지니까 아버지가 여자꾸 사요. 저아빠가
 projector 샀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projector 에 할수있어요. 아버지가
 텔레비전 도 샀어요. 텔레비전 가 3D
 도 할수있어요. 아버지가 balmentin net 모샀어요.



준이론

우리 가족을 좋아해요. 우리 가족에 엄마, 아빠랑 동생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매일 집에서 동생을 돌봐줘요. 내 아버지는
 엔지니어이예요. 아버지는 비행기를 만드어요. 우리 동생은
 이름은 조모세이예요. 모세는 유치원에 가고, 기는 장난꾸러기예요.
 모세는 로봇자동차를 엄청 좋아해요. 나랑 모세는 강아지 아니면
 토끼를 갖고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포유류를 싫어서 못감게해요. 모세는
 내가 하는 것을 달아할려고해요. 엄마랑 아버지는 내가 하는 피겨스케이트를
 맨날 도와줘요. 우리 집에는 엄마가 더 무서운데, 아직도 착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5.29

수업시간



나의 꿈 : 축구 선수

정유진 (2학년)

제 장래희망은 축구 선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박지성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박지성 선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를 잘해서 골인을 잘 시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동네 축구 클럽팀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클럽 팀하고 진짜 팀 둘 다 잘하고 싶어요. 축구를 잘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서 힘들텐데 그래도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더 잘 배워서 한국 가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에 나가서 이기고 싶어요.



그랑땡



봄	밤	학	때	아	빠	가	게	에
갔	어	요.						
아	빠	가	게	도	와	갔	어	요.
아	빠	와	신	선	반	...	만	들
어	요.							었
청	소	를		했	어	요.		
취	심	때		짜	장	면	을	먹
어	어	요.						
창	분	에		브	라	인	스	를
다	때		재	카	도	와	갔	어
요		엄	마	와	페	인	트	도
...	칠	했	어	요.				
아	빠	가	게	에	서		일	하
는	것	은		재	미	있	었	어
								요.

신기한 동물

최준호 (3학년)



제작년 여름에 우리 집안으로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소동이 난 적이 있었어요.

놀란 검은 색 작은 새는 우리를 공격할 것처럼 막 날아다녀서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방 안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저녁에 아빠가 오셔서 새를 잡아 보니 새가 아니라 아주 작은 박쥐였어요.

박쥐는 참 흥미로운 동물이에요. 알고 계세요? 박쥐는 새가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 같은 포유 동물이에요. 새는 알을 낳지만 박쥐는 귀여운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날개도 사실은 깃털이 있

는 날개가 아니고 발가락 사이에 막이 생겨서 날개처럼 만들어진 거래요. 박쥐가 초음파를 쏘서 반향음으로 앞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흔히 박쥐는 눈이 먼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박쥐도 눈이 잘 보인대요. 눈이 크고 얼굴이 여우같이 귀엽게 생긴 박쥐들은 초음파 없이 눈으로만 앞을 본다고 읽었어요.

저는 박쥐를 생각하면 거꾸로 동굴 안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 왜,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건지 궁금하세요? 박쥐들은 새들처럼 아래서 위로 나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박쥐들은 앞발톱을 이용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매달려있다가 떨어지면서 날라간대요. 박쥐들의 발가락은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몸의 무게가 자동적으로 발가락을 오물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 힘을 쓰지 않고 안전하게 매달려서 긴 시간 잘 수 있답니다. 이 세상에는 신기한 동물이 많이 있지만 포유동물 중 유일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박쥐는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동물 같아요.

보통사람들은 우리엄마같이 박쥐를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집으로 박쥐가 들어오면 무서워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박쥐가 집에 들어오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래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 그림을 그리고 글로 써 보세요.



최준호

분방학 ()

이	번	분	방	학	은				
재미		없	었	어	요			처	음
부	터		엄	마	가		모	탈	엔
왔	었	어	요		엄	마	가		
저	기	에	서		일	을	해	요	
그	런	대		매	니	저		해	고
했	어	요		그	래	서		엄	마
가		모	탈	에		살	표		있
었	어	요		엄	어	서		심	심
했	어	요		친	구	랑		늘	고
시	프	면		친	구	들	이		
밖		에	서		야	구		늘	고
싶	었	어	요		그	런	대		
야	구		놀	면		친	구	들	이

나	이	가	나	보	다		많	아	서
이	러	라		저	러	라		했	어
요		그	래	서		짜	증	났	어
요		속	재	쥬		만	이	있	어
요		아	니		분	방	학		
중	에		속	재	!	!	!		
이		세	개		이	유	대	문	애
분	방	학		재	미		어	었	어
요			쥬						

계란말이

- 재료
계란 3개
- 양파 1/2개
- 당근 1/2개
- 식용유 1스푼
- 소금 1/2스푼
- 스펀지 1개
- 순서
1. 계란을 깨서 그릇에 넣고 잘 개어준다.
2. 양파, 당근, 과 스펀지를 조금씩 잘라서 계란과 섞는다.
3. 소금, 양간, 볼은 다.
4.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불에 올린다.

- 후라이팬이 뜨거워지면 계란을 부은다.
- 가장자리 익어가면 spatula로 조금씩 말면서 익힌다.
- 이렇게 잘라서 접시에 담는다.



내 친구 효빈이

정다정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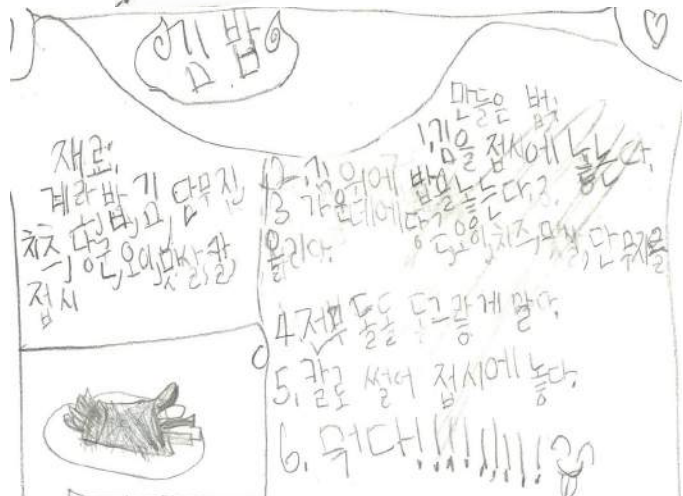


내 친구 효빈이를 만나요. 나는 효빈이를 유치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우리 둘 다 Mr. Rettig 반에 있었어요. 효빈이가 내가 영어를 잘 못할 때 도와줬어요. 효빈이는 웃기고 샵킨을 좋아해요. 효빈이는 착하고 다정해요. 효빈이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효빈이는 동생이 두명 있어요. 우리 같이 잘 놀아요. 효빈이는 자주 웃고, 자주 머리를 묶어요. 효빈이는 나보다 일주일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키가 더 커요. 머리 색깔은 검은 색이에요. 나는 효빈이가 좋아요. 효빈이는 엄마, 아빠, 남 동생 두명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효빈이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는 식당에서 일해요. 나는 효빈이네 테리야끼가 가장 맛있어요. 이제 우리는 3학년에 있어요. 우리 둘 다 Mrs.Vagt반에 있어요. 어떤때는 못 말리지만 그래도 그게 내 친구, 효빈이에요.



활동 2 동화를 읽고 무엇을 느꼈나요?
그림을 그리고 글로 써 보세요.



- 내가 만든 한국 음식
- 음식 이름: 김치 파전
 - 재료:
 - 부침가루 (1컵)
 - 김치
 - 파
 - 물 (3/4 컵)
 - 식용유
 - 만드는 순서
 1. 부침가루 1컵에 물 3/4컵 넣고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잘 저어줍니다.
 2. 파 하고 김치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 넣은 후 골루 섞어줍니다.
 3. 가열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적당히 두른 다음 글자로 글썽하게 부어 3분 정도 부칩니다.



2015
1.8. 수제
겨울 방학에 있었던 일. | Page. [Skip every other line]

겨울 방학 동안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우리 가족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왔어요. 맛있는 음식들 많이 많이 먹었어요.

그 동안에 한국 연속극을 많이 보았어요.

새해 전날에는 친구들과 방화시가지도 같이 놀았어요. 설날에는 여하가 떡만두국을 만들었어요. 떡만두국이 너무 맛있어요.

엄마하고 친구들과 같이 영화도 보았어요. 'Fruits Basket' 만화도 보았어요. 산수 수제도 했어요. 우리 집 개로라 같이 들었어요.

고모네 가서 미식축구도 같이 보았어요.

권삼촌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정인아

봄방학
봄방학 동안에 우리 가족하고 친구들과 하고 같이 Ocean Shore로 캠핑을 갔어요. 화다가는 아주 아름다웠고. 우리는 많은 해물들 볼 볼 보았어요. 모래 새우, 게, 조개하고 이상하게 생긴 해파리도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캠핑 장소에 돌아와서 Marshmallow 하고 Croissant을 맛있게 구어 먹었어요.

캠핑하고 와서 집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Netflix에서 보았어요. 연속극은 '너희들은 포위됐다'라는 웃기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해적'이라는 영화도 보았어요. 영화는 재미있고 그리고 싸우는 장면들이 좋았어요.

마지막 주말에는 Vancouver로 여행 갔어요. 맛있는 음식들 Joey's라는 음식점에서 먹고. 후식은 Thiemy's라는 곳에서 아주 진짜로 맛있었어요. 다음날에는 Stanley 공원에서 돌고래하고 물고기도 많이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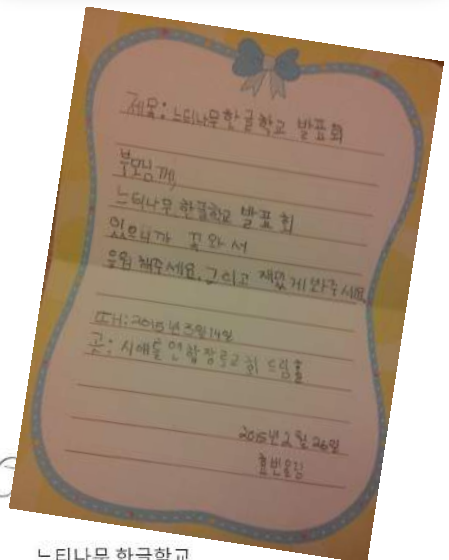
-인아



활동 2 동화를 읽고 무엇을 느꼈나요?
그림을 그리고 글로 써 보세요.



- 1 재미있었어요
- 2 읽으니 속이 좋고 슬어요.
- 3 조금 못 봤어요
- 4 처음 읽으니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 했어요
- 5 2번 읽으니 권자 재미있어요.



설효빈

겨울방학 동안...

3-12학년				느티나무한글학교																	
겨울	방학	동안	down	twon	<	다	운	타	운	>	에										
갔	다	.	기	차	를	탔	다	.	화	전	물	마	.	도	너						
초	를		머	었	다	.	옷	차	러		시	장		갔	다						
.	집	에	서		차	로	다	운	타	운	.	가	지		40	분					
걸	리	고		기	차	타	시		다	운	타	'	한	가	지						
40	분		걸	것	다	.	우	리	엄	마	하	고	아	빠	는						
안	가	고		할	머	니	,	큰	할	머	니	,	이	모	할						
머	니	,	고	모	,	고	모	부	,	혜	주	,	나	,	두						
동	생	들	이	랑		같	이		갔	다	.	24	시	간							
동	안	걸	으	니	가		다	리	가		아	팠	다	.							
또	가	고	싶	다	.	진	짜	재	있	었	다	.									

엄마의 소원

정유나 (4학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엄마는 소원이 많은 거 같아요. 저는 제 엄마의 소원을 따르려고 하지만 어쩔때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제 엄마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제 동생을 많이 도와줘서요. 저는 엄마보다 영어를 더 많이 아니까 학교 숙제는 제가 제 동생을 도와줘요. 저희가 남매라서 그런지 서로 도와줄 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도와 줄 때는 서로 잘 도와줘요. 저는 엄마랑 패션 감각이 비슷해서 문제 없이 예쁘게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아니에요. 제 동생은 짧은 농구바지에다가 큰 미식축구 티셔츠를 입어요. 청바지도 싫어하고 피아노 리사이틀에서 잠깐 입는 양복도 싫어해요. 엄마가 다른 거 입으라고 하면 징징거리다가 그래도 그냥 입고 나가죠.

저는 책을 많이 좋아해요. 제 엄마는 제가 한 살 때부터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도서관에 세 번을 갔어요. 또 다섯 살 때에는 친한 사촌 언니랑 일주일에 세 번 책을 읽고 요약하는 것을 연습했고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책속에서 제가 직접 경험을 못 해 본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전에 Wonder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주인공이 어거스트예요. 어거스트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의 모습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갈 때마다 아이들이 어거스트를 맨날 놀렸어요. 그래서 어거스트는 엄마한테 홈스쿨링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6학년때 다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부터는 친구들도 몇 명 사귀어서 다른 아이들이 많이 안 놀리고 왕따를 안 당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얼굴이나 뇌가 보통 사람들보다 달라도 같이 놀아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반에서 몇 명이 매주 수요일마다 장애인들 반에 가서 책도 읽어주고 같이 보드 게임도 하는데 저도 가서 같이 놀아요.

사람들마다 잘하는 것이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제 엄마는 제가 머리 혼자 하기, 다른 거 안하고 공부하기, 방 치우기, 일찍 일어나기 등을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술이 많아서 머리 말리기가 어려워요. 머리 묶고 감고 하는 거는 잘 하지만 머리 말리는 거는 많이 어려워요. 제 엄마가 말려주면 20분이 걸리지만 제가 말리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어쩔때는 서운합니다. 제 방은 난장판이에요. 하지만 옷이 어디에 있는 지 다 알아요. 엄마는 맨날 그러죠.

“방 좀 치워! 너무 더럽잖아. 옷이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를 걸!”

저는 엄마한테 말하죠.

“어떤 애들은 내 방보다 더 더럽고 그리고 나는 내 옷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하고 말합니다. 어쩔 때는 엄마가 못 참아서 제 방을 치워주세요. 그러면 옷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한테 옷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나쁜 버릇은 늦게 자גיע요. 저는 10시 30분 아니면 11시에 자고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러면 엄마한테 많이 혼나죠. 지금은 좀 고치고 있어요. 저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을 많이 좋아해요. 토요일에는 거의다 하루종일 집안에 있어요. 주중에 텔레비전을 못 보니까 주말에 텔레비전을 왕창 봐요. 그래서 어쩔때는 텔레비전을 10시간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봐서 머리가 아파서 더 많이 짜증나고 더 많이 화가 나요. 그래서 짜증낸다고 엄마와 아빠한테 많이 혼나기도 해요.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는 나쁜 버릇이 있지만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고요. 제 엄마의 진짜 소원은 저하고 제 동생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 꿈의 세가지 이유

노지영 (8학년)



제 꿈은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달라 질수 있어도 제 꿈의 이유는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 꿈이 뭔지 보다는 그 꿈의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 꿈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둘째, 복음을 전하기; 그리고 셋째,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입니다.

첫째, 제가 제일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어서 해야만 해서가 아

니라 하고 싶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라도 해야되지 않겠어요?

둘째,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극을 볼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그 시대에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몰랐으니까 천국으로 갔을까, 지옥으로 갔을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대의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벌써 자살을 했을 것을. 이 온 세상이 저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더 이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셋째, 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완벽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자연 재해, 질병, 가난, 사람들의 욕심, 등등...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개를 봤습니다. 이 개는 다리가 세 개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개를 본 순간 펄펄 울었습니다. 저는 동물들, 특히 개들에게 정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왠지 저는 어른이 되면 동물들을 도와주는 동물보호협회에 기부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북한 영화를 본 후 오랫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왜 저런 고통을 당할까? 저도 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요. 제가 북한 사람이었다면 매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우

제가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유명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편안한 삶을 저와 제 언니의 미래를 위해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부자가 돼서 제 부모님의 희생을 멋지게 보답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을 제 부모님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의 희생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더 멋지게 갚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꿈의 세 가지의 이유들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 돼도 행복할 겁니다.



We Day Seattle 2015

장승이 (8학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맨날 꿈이 뭐냐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자신있게 “요리사! 선생님! 미국의 첫 여자 대통령! 의사!”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 갈수록 저는 시시해졌습니다. 어른들이 저한테 “니 꿈은 뭐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없다고 말하면 저한테 따지십니다. “이제 커가는 데 꿈이 없으면 어떡하냐” 라고 저한테 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꿈에 대한 질문을 하는게 정말로 짜증나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모든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2015년 4월 24일에 시애틀 Key Arena에서 열리는 WE DAY에 갔습니다. WE DAY는 시애틀에 있는 모든 청소년 리더들이 모여서 어떻게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배우고, 보고, 또 체험도 했습니다. 저는 WE DAY에 가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Seahawks Coach Pete Carroll은 시애틀과 LA에 있는 갭단에 속해 있던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구해 주었고, 가수 겸 배우 Demi Lovato는 학교에서 왕따와 폭행을 당하는 있는 아이들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프로 농구 선수 Magic Johnson은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나이인Gracie Schram은 자신의 목소리로 작곡을 하고 또 CD를 제작하고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Caleb Dawson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학교에 다니는350명의 학생들과 Food Drive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캔 음식을 모음)를 계획해서 12,500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을 모았습니다. 그 12,500 파운드 음식을 3,14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Spencer West는 5살 때 genetic disorder(유전적 장애)으로 인해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후 의사들이 Spencer West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다고 Spencer West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Spencer West는 팔의

신기하고 대단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Spencer West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와 닿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데도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노숙자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으나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은 보형이 없어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를 나누었던 어떤 남자 어른은 베개에 베틀이 있어 잠을 잘 자지 못해 힘들어했습니다. 또다른 남자 어른은 겨울 날씨 때문에 언 땅바닥에 잠을 자서 심한 독감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방 접종도 못 받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돈도 없어 약도 구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숙자 봉사를 다녀온 후, 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독감 예방 주사를 놔 주고, 무료 검진을 하고 저렴한 약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질병이 없어진다면 어떨까? 아님, 안 아픈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가 신약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 그리고 지금까지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제가 직접 약을 개발해서 치료해 주고 싶습니다. 신약개발 연구원이 되려면 첫번째, 공부를 완전 많이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9학년에 IB PROGRAM에 신청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John Hopkins 대학에 들어가서 학사 학위를 받고, 석사와 박사 학위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나서 훌륭한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많은 병을 제가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덜 아픈 세상, 사람들이 병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제 꿈을 널리 널리 펼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부해 주고 싶습니다. 또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고 싶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WE DAY 에 있던 사람들처럼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어리고 약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unless you make it impossible”

이 세상에는 불가능이라는게 없습니다. 자신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나의 꿈: 마음을 화장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노한나 (10학년)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화장이 필요한 상황, 장소, 얼굴형, 피부톤, 의상 등을 생각하여 개성을 연출하고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려고 분장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전 6학년부터 화장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용을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하게 됐는데 여드름이 아주 심해서 여드름을 감추려고 엄마 몰래 엄마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학교에 갔었어요. 또, 화장을 한 이유는 바로 왕따와 따돌림 때문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화

장을 잘 못하고 옷을 잘 못 입으면 왕따를 당합니다.

작년 봄 어느 날 유튜브에서 Michelle Phan이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동영상들을 보게 됐어요. Michelle 언니는 화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동영상으로 찍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셸 언니는 Youtube으로 인해 인기가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셸 언니의 화장 회사, EM을 만들었습니다. 전 Michelle 언니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난 화장을 잘하고 좋아하니깐 나도 Michelle 언니처럼 유튜브에 화장하는 동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직업으로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을까란 생각도 했어요. Michelle 언니는 돈이 있는 여자들을 위해 화장을 가르치고 있지만 전 돈이 없어 상처받고 놀림 받는 여학생들을 위해 화장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자신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여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화장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미국과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모 때문에 상처가 많은 여학생들에게 기회를 선물하고 싶어요. 서로 같이 얘기하며 예전에 있었던 상처들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제 꿈입니다. 얼굴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름답게 고쳐주고 싶어요. 두꺼운 화장 밑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화장만 한다고 마음이 더 좋아 지거나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얼굴에 화장만 해주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마음도 화장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2015 교내 한국어 말하기 발표회

일시: 3.14. 토 (4:00pm)



제19회 한국어 학력경시대회 및 한국어 말하기대회

일시: 4. 18 (토) 주최: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한국어 학력경시대회 입상을 축하합니다!!!

- 최우수상 (정유나)
- 우수상 (장송이, 노지영)
- 장려상 (노한나, 김민성)

한국어 말하기대회 입상을 축하합니다!!!

- 은상 (노한나)



제23회 학예경연대회

일시: 6. 6 (토) 주최: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글짓기 부문 입상을 축하합니다!!!

- 장원: 노지영
- 금상: 장송이, 정유나
- 은상: 노한나
- 창의상: 정유진, 주재균

